國展是非

제17회

南冠分委長辭退의辯

여느해보다 합리적인 심사운영과 공정한 심사를 위해 애썼다는 文公部의 主張에도불구、十七回 國展에 또다시 개운찮은 反抗이 노골적으로 튀어나왔다。西洋畫部審査委員長인 南冠씨가 最終審査에서 『심사가 事前談合에 의한 물러먹기』라 주장、각部門마다 하나씩 配當되는 文公部長官賞 도 거부하고 退場해버린것이다。

十五年만에 「프랑스」로부터 지난 八月에귀국、처음으로 國展審査에 참가한 南화백의 이 『순픈』사건에대한 경위선명에의하면 二十六日의 最終審에서 大統領賞·國會議長賞·國務總理賞 수상작의 선정에서 하나같이 西洋畫 五표 각一표 수한 作品위주의 삼사 가 얻고 나머지 受賞作으로 윤치하여 윤했다는것은 결코우연으로 볼수 없는 이 投票결과는 『사전 部門을 배정하기로 담합했다는 소문을 사실 아니겠느냐』는 결론이 굳혀주었다고。南화백은 의데적으로 들아운것과 해당작이없는 전국부문 으로부터 물려진 두개의 文公部長官賞까지거절했음에도 分委長인자신도 물래 어떻게 文公部長官賞수상작이 결정되었는지 모르겠다고 반박한다。

우리畫壇의 내막에대해서는 전혀 생소하고 그가확악한 「프랑스」식으로생각없이순수한 作品위주의 삼사 받은 이 受賞 作品은 그자신의눈으로는 「프랑스」「이발리아」「스페인」의 公募展수준에 따라서